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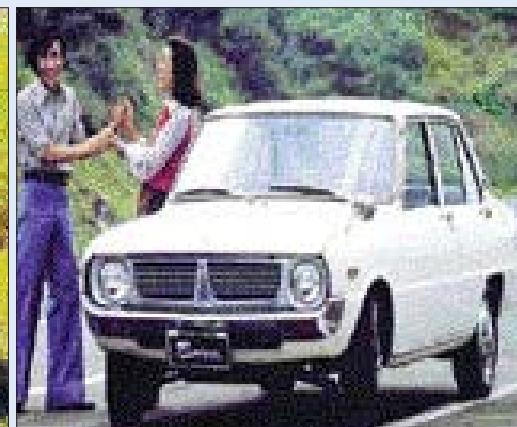
신진자동차-새나라 (1962.11~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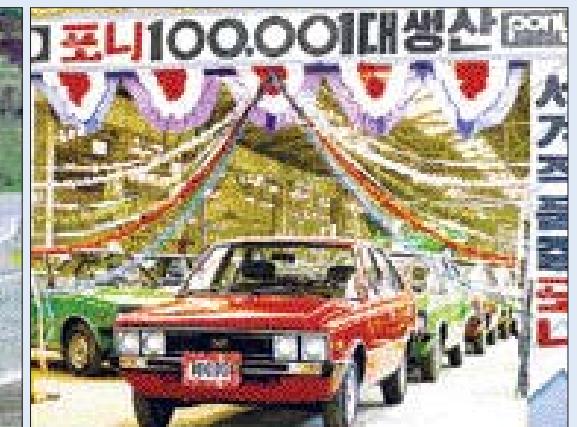
현대-코티나 (1968.11~71.9)



기아-피아트124 (1970.3~73.4)



기아-브리사 (1974.10~81.12)



현대-포니 (1975.12~82.12)

## 시발·새나라·포니… 이런 차도 있었네

### ■ 국내 단종 승용차의 역사

을 들어 국내 자동차시장에 ‘신차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등 국산차업계는 올해 ‘뉴 모닝’을 필두로 ‘모하비’, ‘제네시스’ 등의 신차를 잇따라 쏟아내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국산차업계가 ‘베스트셀러 카’를 노리는 신차는 모두 17종. 이는 새 모델과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모두 합친 것으로, 업계의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하지만 모든 차들이 ‘베스트셀러 카’가 될 수는 없다. 장기간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명성을 이어가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불과 1~2년 만에 사라지는 차도 수두룩하다. ‘뜨는 차’가 있는 반면, ‘사라지는 차’도 많다는 얘기다.

물론 자동차의 단종을 아쉬워 할 일만은 아니다. 기존 모델의 생산을 멈춘다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개선된 차량이나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지난 1955년 ‘시발’ 자동차 출시로 시작된 국내 승용차업계의 ‘단종의 역사’를 살펴본다.

◇ 53년간 국산차 총 150종 ‘탄생’…평균 수명 5.7년=1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195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출시된 국산차는 146종. 여기에 올해 출시된 모델까지 합치면 총 150종에 달한다.

이는 새 모델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쏘나타, 뉴 쏘나타, 쏘나타Ⅱ 등을 각각 다른 차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가운데 업체의 생산중단으로 단종된 모델은 110종으로 전체의 80%에 이른다. 국내에서 출시된 자동차 10개 중 8개는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들 단종차량의 평균수명은 5.7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생산된 장수모델은 8종이었고, 8~10년은 12종, 4~8년은 63종이었다. 27종은 4년을 못 넘기고 단종했다.

특히 1955년 출시된 ‘시발’이 10개월 만에 단종된 것을 비롯, ‘새나라’(1962년)와 ‘신성호’(1963년), ‘카미나’(1976년)



우리나라 최초 국산 자동차인  
시발자동차. 1955년 8월 출시  
돼 10개월만에 단종됐다.

53년간 150종 탄생…평균 수명 5.7년

‘코란도’ 27년 9개월간 생산 최장수

새나라·신성호·카미나, 1년도 안돼 단종

등은 1년을 못 버텼다. 이 가운데 ‘신성호’는 국내 최단命 모델로, GM대우의 전신인 신진자동차에서 6개월간 생산하다 단종됐다.

이밖에 GM대우의 ‘씨에로’(1994년)와 쌍용 ‘칼리스타’(1992년)는 2년 만에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다.

◇최장수 모델은 ‘코란도’…스텔라·프라이드 등도 ‘장수’=국내 단종 차종 가운데 최장수 모델은 쌍용의 ‘코란도’로, 무려 27년9개월간 생산됐다.

‘코란도’는 1969년 탄생한 이후 20여년을 독주했으나 현대 ‘겔로퍼’와 기아 ‘스포티지’ 등의 등장으로 시장경쟁이 격화되자 1996년7월 단종됐다. 이후 ‘뉴 코란도’로 새롭게 탄생했다.

스텔라는 소형차들이 주종이던 1983년 1500~1800cc급 엔진을 앞세워 14년간 인기를 끌었다.

기아 ‘프라이드’도 ℥ 당 16.9km를 주행하는 높은 연비를 앞세워 14년간 시장을 누볐다. 1987년 3월 출시된 뒤 2000년 2월까지 126만대가 팔려나가면서 ‘베스트셀러카’에 이름을 옮겼다.

이와 함께 쌍용 ‘무쏘’는 12년, GM대우 ‘트밍’과 ‘로얄살롱’은 각각 11년간 수명을 유지했다. 기아의 ‘스포티지’는 1992년부터 10년간 이름을 옮겼다.

이밖에 현대 ‘쏘나타’는 1985년 첫 모델을 선보인 이래 23년을 이어온 국내 최장수 단일 브랜드로, 쏘나타Ⅱ, EF쏘나타 등 총 9번의 변화를 거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프라이드·스포티지·쏘나타·마티즈…

### 옛 명성으로 다시 살아나다

다시 태어난 차도 있다. 프라이드·스포티지·쏘나타·마티즈 등이 대표적이다.

기아차의 ‘프라이드’는 소형 승용차 ‘리오’의 후속모델이다. 새 차의 이름은 옛 ‘프라이드’에서 따왔지만, 엔진과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새 차다.

1993년 첫 선을 보인 ‘스포티지’의 이름은 딴 ‘스포티지’는 기아차의 최고 인기모델로 떠올랐다. ‘쏘나타’도 지난 1988년 출시된 뒤 20년 가량 국내서만 200만대가 넘게 팔렸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10년 전에 단종한 왜건형 모델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1998년 ‘아반떼 투어링’ 단종 이후 10년 만에 왜건형 차량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i30’의 왜건형 모델인 ‘i30CW’이 그 주인공이다. ‘아반떼 투어링’은 1995년 출시된 뒤 1만8천609대가 팔렸지만 4년 만에 단종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새로 출시된 모델은 옛 차량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동안 쓰아온 제품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풀이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 승용차 모델별 생산(판매)기간

차명	~'65	~'70	~'75	~'80	~'85	~'90	~'95	~'00	~현재
시발	55.8~56.5								
포니		'75.12			'82.12				
그랜저			'78.10		'85.12				
스텔라				'83.7				'97.1	
쏘나타				'85.10	'87.2				
겔로퍼					'91.9			'97.3	
브리사		'74.10		'81.12					
K-303			'76.12	'81.12					
프라이드				'86.12				'00.2	
세피아					'92.9			'97.8	
새나라	'62.11	'63.5							
신성호	'63.11	'64							
코란도	'66.5		'72.11						
제미니			'77.12	'81.3					
로얄 살롱			'80.9		'91.9				
티코	'69.11				'91.5			'00.3	
코로도								'96.7	
무쏘					'93.8			'05.4	

(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

CBS인턴기자는

## 이 원희 목사의 성서지리 풍습 세미나



### 교양세미나

• 성경의 지리, 풍습 해석

• 성지 영상 & 사진 자료 상영

• 기간: 2008년 2월 13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광주 CBS 1층 전시홀

• 신청: 전화접수

• 특전: 성지 영상 소책자를 성지지도 풍성

### 성서지리·풍습·문화 톨시 세미나

- REAL EXODUS (정통 출애굽) 14일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9일 / 11일
-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13일

